

서울여대에 부는 코딩 열풍... 방학도 반납하고 심화수업

8월 3일까지 5주간 7시간 교육
디지털미디어학과 등 172명 의무
이수학생 체험형 인턴십 연계도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서울여대(총장 전해정)에는 4년 10학기 과정이 있어서다. 4년제 대학의 학제는 8학기지만, 서울여대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학생들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통해 총 20학점을 추가 수강해 10학기를 듣는 셈이다.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들이 주로 방학을 이용해 고액의 학원비를 내는 현실 속 서울여대의 코딩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교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교내 50주년기념관에서 '2018학년도 서울여대대학교 하계 SW사관학교 입학식'을 갖고 이날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5주간 매일 7시간씩 코딩 교육에 돌입했다.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사관학교는 지난 2016년 과기정통부로부터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설립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여름학기부터 시작해 이번까지 3회째 진행되고 있다. 총 교육과정은 4년 10학기제다.



과기정통부 SW중심대학사업 선정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사관학교가 4년 10학기제 소프트웨어 집중교육을 진행하는 등 서울여대의 코딩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여대학교

이번 여름 학기에 진행되는 강좌는 '프로그래밍 Guru(그루) I, II' 과정으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정규 학기에서 진행하기 힘든 집중 교육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감을 잡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역량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 250명으로 서울여대에 설치된 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 등 3개 과 재학생 172명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외 3~4학년 위주의 데이터과학연계 전공과 기업보완융합연계전공 등 교내 6개 연계전공 수강 학생이 참여한다.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비교과 프로그램이지만, 소프트웨어 교육 측면에서 효과도 크고 학생들 호응도 좋다. 또 대학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이 보통 방학을

이용해 적게는 30~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내는데, 서울여대 학생들은 무료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셈이다.

소프트웨어사관학교 그루 교육을 총괄하는 서울여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강승석 교수는 “방학을 이용한 집중교육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 감을 잡고 좀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경제적 부담도 없이 심화수업을 통해 향후 취업 등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여대는 특히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된 유일한 여자대학교로서 ‘섬 인지적인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강 교수는 “프로그래밍은 사실 여성에 적합한 영역”이라며 “국내 산업 구조상 프로그래밍 분야가 야근 등 험한 환경에 있어 여성들의 진출이 적지만, 차츰 여건이 개선되면서 여성들의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서울여대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취업 연계로도 이어지고 있다. 매년 소프트웨어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50여명이 체험형 인턴십이나

취업연계형 인턴십을 통해 관련 산업 현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턴 경험을 한 회사에 졸업후 바로 취업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사관학교를 통해 프로그래밍 교육과 소프트웨어 영어, 1인 1소프트웨어 재산권 확보 등을 졸업인증제로 두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 진출을 위한 엄격한 학사관리도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강 교수는 “4학년에서 캡스톤교육과정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논문으로 발표하고 졸업 전에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특허출원 등의 경험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취업 면접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코딩 교육 열풍과 관련해 “코딩은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중간 톨이다. 3000~4000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가운데 어떤 언어를 쓰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결국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기술보다는 인문학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논리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사관학교는 그런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서강대 코어사업단

인문고전 강독회 개최

서강대학교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단장 류동춘, 이하 코어사업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인문고전 강독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독회는 대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인문사회 고전 원전을 탐독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독회는 동양 인문고전인 '주역'과 서양 인문고전 '오뒷세이아', 사회과학 고전 칼 맑스의 '자본론' 1·3권, 독일사상고전 헤겔의 '정신현상학', 프랑스사상고전 앙리 베르그송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등 총 5회로 진행된다.

코어사업단 류동춘 단장은 “서강대 재학생들이 인문학에 깊이있는 관심을 가지는 것에 이번 원전 강독회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학계를 이끌 창의적 인재들이 이 프로그램을 그 첫걸음 또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독회는 앞서 지난 1~2월 서강대 코어사업단이 인문고전 강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여름방학 중에도 다시 개최하게 됐다.

중앙대

한·일·중·러 클러스터 논의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가 대학을 방문해 차용구 중앙대 접경인문학 연구단장 등을 만나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표하는 접경연구소들 간 국제 연구클러스터 발족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은 1977년 설립된 중국 국무원 직속 국립연구기관으로 6개 학부, 37개 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변강연구소는 역사학부 내 소속돼 있다.

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차용구 단장은 “중국의 대표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동북아 화해와 공존을 위한 연구 클러스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재능대

재학생 명예홍보대사 발대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지난 2일 제1기 재학생 명예홍보대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학과별 재학생 대표로 구성된 총 21명의 명예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대학 홍보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이기우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인천재능대를 대표해서 대학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소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용수 기자



한양대, 국내최대 국제여름학교 입학식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8 한양 국제여름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외국인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입학식에는 49개국에서 온 1,800여 명의 외국학생을 포함,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는 해외대학 기준 국내대학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연희뉴스

“한국전력공사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학생 공기업 선호도 15년만에 ‘지각변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초임 약 4300만원
“높은 연봉, 순위상승 이끌었을 듯”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2009~2017 TOP3 History〉 /자료=인크루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중소기업 은행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가스공사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 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 은행	한국 남동발전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폐공사의 선호도 상승이 눈에 띄었고,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공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선호도가 드러났다.

3일 인크루트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식된 공기업 중 지난해 매출순위 1위~20위까지를 대상으로 대학생 회원 1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순위가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지난 2004년부터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를 벌여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설문방식은 대상 공기업에 대학생에게 무작위 순으로 노출하고 가장 선호하는 기업 1곳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 대학생 선호 기업 1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18.2%)가 차지했다.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 9년 간 매년 1위를 차지했던 한국전력공사(18.0%)를 간발의 차이로 2위로 밀어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전체순위에서도 5위를 차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입 초임은 약 4300만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높은 연봉이 순위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생 선호 공기업 3위는 한국조폐공사(8.9%), 4위는 한국공항공사(8.8%)가

올랐다. 두 공기업의 득표율도 0.1%p 차이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특히 한국조폐공사는 이 조사에서 사상 첫 3위를 기록했고, 4위 한국공항공사는 1위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최고 수준의 선호를 얻어 공항공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6.2%), 한국수자원공사(5.6%), 한국토지주택공사(4.9%), 한국수력원자력(4.7%), 한국가스공사(4.5%), 한전KPS(3.7%)가 각각 5~10위를 차지해 톱 10에 랭크해 인기 기업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